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수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학습·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가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서유진

음악학습·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가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배수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서유진

인 준 서

서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임 인 경 (서명 또는 )

심 사 위 원 _____ 배 수 영 (서명 또는 )

심 사 위 원 _____ 김 은 주 (서명 또는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를 파악한 후,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한 결과, 53명의 음악전공, 76명의 음악교육전공, 총 129명의 연구대상이 모집되었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문항은 Ritchie & Williamon(2010)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진로성숙도는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모두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모두 '보통' 수준을 보였다. 음악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평균 5.74(SD=.67)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평균 5.40(SD=.86)점이었으며,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평균 5.66(SD=.82)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평균 5.30(SD=.9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는 모두 '보통' 수준으로 전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독립성은 음악교육전공이 음악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을 비교했을 때,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독립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부모나 주변의 영향에 의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존적 인지경향을 가진 사람은 독립적 인지경향을 가진 사람보다 불분명한 직업적 흥미를 보여준다는 것을 고려한

다면(Witkin, 1973), 낮은 독립성은 후일 교직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독립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음악전공의 경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평균 4.54점, 음악교육전공의 경우 목적성이 평균 4.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악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설령 음악교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했을지라도, 직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도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준비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에 영향을 주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음악교육전공의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이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음악전공 대학원생은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원생의 확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의 결여는 무대 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Ritchie & Williamon, 2010)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모두 전체 진로성숙도 점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과 독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업을 통한 자기계발, 대인관계 등과 같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며, 직업선택에 있어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중등음악교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결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실제 전문음악가 혹은 중등음악교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과 직업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한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음악전공 대학원생은 확신성 측면에서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은 독립성 측면에서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음악적 자기효능감	5
2. 직업선택 의지	8
3. 진로성숙도	9
4.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12
III. 연구방법	14
1. 연구대상	14
2. 연구절차	15
3. 연구도구	16
4. 자료분석	21
IV. 연구결과	22
V.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15
<표 2> 연구절차	16
<표 3> 설문지 구성	17
<표 4> 주요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19
<표 5>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의 특징과 예시	20
<표 6> 집단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22
<표 7> 집단별 최종 희망직업	23
<표 8> 집단별 전문음악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 ..	24
<표 9> 집단별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	25
<표 10> 집단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차이	26
<표 11> 집단별 직업선택 의지 차이	26
<표 12> 집단별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 간 차이	27
<표 13>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8
<표 14>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29
<표 15>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30
<표 16>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31
<표 17>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2

<표 18>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33
<표 19>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33
<표 20>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는 ‘carro’라는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으며, 한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뜻한다. Hoyt(1974)는 진로란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이며, 삶의 핵심이자 목표를 이루는 길이라고 정의하였다. Hansen & Keierleber(1978)에 따르면 진로는 가족, 일, 교육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개인을 도와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박선영 외, 2014, p. 1, 재인용). 종합해보자면 진로란 직업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선택을 비롯하여 자신의 생애 동안 이루어내는 삶에 대한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희망 진로에 대하여 연구한 주희선(2013)에 따르면, 음악전공 대학생은 연주자 49.5%, 음악교사 13.4%, 레슨교사 4.2%, 즉 도합 66% 정도가 연주자 혹은 교육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곡전공 대학생의 희망 진로에 대하여 조사한 한정수(2017)의 연구 또한 작곡가 24.6%, 음악감독 22.7%, 레슨교사 및 음악교사 9.4%로, 음악가와 교육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도합 56.7%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당수의 음악대학 학생이 음악가와 교육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2022)에 따르면 음악대학 졸업생은 12.1%의 진학률과 55.1%의 취업률을 보였다. 전체 대학생 평균이 7%의 진학률과 64.1%의 취업률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음악대학 학생은 타 계열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진학률과 동시에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러한 음악대학 학생의 높은 진학률과 낮은 취업률은 음악대학을 졸업

한 다수의 학생들이 음악 직업인으로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음악대학 학생들이 대학원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음악대학 학생이 상급학교인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연주가나 교육자로서 발전된 경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래 직업으로 연주가나 교육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도, 미래 직업에 대한 뚜렷한 자기 관점과 진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졸업 후 성공적인 음악가 혹은 교육자로서 경력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Froehlich & Arlington, 1985).

성공적인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은 단순히 대학 학업의 연장선으로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전문 음악가, 중등음악교사로서 자아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아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이희영, 2003, p. 69)이라는 진로성숙의 정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기학, 한중철(1997)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일의 의미를 단순한 외적인 보상보다는 일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 이를 토대로 일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점에서 콩쿠르와 같은 성과를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전문음악가나, 인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외현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등음악교사의 직업 특성상,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가 필요하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박완성, 김미숙, 2009; 유은경,

2018;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또한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음악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세진, 2019; 오남주, 2022). A. Bandura(1925~2021)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결과를 생산해야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McCormick & McPherson, 2003),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주하는 문제와 요구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다 (Bandura, 2004). 이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후 마주하는 여러 직업적인 상황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자는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음악대학 학생이 향후 희망직업으로 연주자와 교육자를 가장 우선으로 뽑는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일반대학원 음악전공자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자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과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악학습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과 직업선택 의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둘째,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적 자기효능감

1)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A.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부터 기원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행동 학습과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이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으로 나뉜다(성은현, p. 220, 재인용).

이후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특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McCormick & McPherson(2003)는 332명의 음악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주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주에서 자기효능감은 실제 연주 시험의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McPherson & McCormick(2006)은 후속연구에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역을 스케일과 같은 기술적 능력, 초견, 작품, 청취능력, 음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같은 다섯 가지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재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연주에서 자기효능감은 연주 시험의 학업 성취를 예견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Nielsen(2004)은 130명의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음악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리허설,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학업환경, 또래학습과 도움추구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인지적·메타인지적인 학습 방법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국내에서도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예컨대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후 가창, 감상, 기악, 창작 등의 음악 활동과 과제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라 정의하고, Bandura(1997)가 제시한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을 음악 학습의 관점에서 수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음악경험, 교사기대, 가정음악환경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의 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자기효능감 내에서도 학습과 수행이 양분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Schunk(1996)은 한 영역 안에 특정한 업무를 학습하는 것과 수행하는 자기효능감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학습은 기술과 지식의 인지에, 수행은 대개 실행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두 가지의 효능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습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얻기 위한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수행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이전에 학습한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실행에 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실행의 개념을 적용한 Ritchie & Williamon(2010)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효능감으로 양분하였다. 이들은 음악학습 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연습과 연주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둘의 측정을 위한 경험적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으로 양분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혹은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의 한 가지 영역에만 집중하거나,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명칭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혹은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으로 수정하여 두 개념 중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음악전공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와 함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조사한 박세진(201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총 29문항 중에서 25문항이 연주를 위한 학습과 준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으며, 연주 자체에 대한 문항은 4문항에 불과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음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한정(2022)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총 20문항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이 학습의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연주 자체에 대한 문항은 4문항 미만이었으며 개중 몇몇은 음악 연주와 학습에 대한 내용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중국 대학 성악전공 학생의 성악공연경험이 음악학습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판리(2022)의 경우,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전공만족, 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오남주(2022)는 음악전공자의 연주실기 능력을 중시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연주 자기효능감으로 수정하였다.

이처럼 국내 연구에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음악학습과 음악연주

중 한 가지 면에만 치중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박세진, 2019; 오남주, 2022; 한정, 2022),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음악연주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으로 양분하여 진행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학습과 연주가 양분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음악전공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학습적 측면과 연주적 측면을 나누고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음악학습에 도입한 Ritchie & Williamon(2010)을 바탕으로,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을 ‘음악연주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학습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실제 연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전에 배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주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2. 직업선택 의지

Miksza, Evans, & McPherson(2021)에 따르면, 현재까지 음악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선택 의지와 자기결정성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음악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율적인 동기 지향을 가진 학생은 음악 직업선택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동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부적응의 문제를 가지며, 낮은 직업선택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nneville-Rossy, Evan, Verner-Filion, & Vallerand(2016)는 음악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지처리능력에 관한 여러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 인지처리능력을 가진 음악 대학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직업선택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es & Jones(2012)는 음악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대, 능력 지각, 내재된 흥미, 달성 가치, 그리고 사회적 효용 가치,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 6 가지 동기 구성 요소와 음악연주가, 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사회적 효용 가치와 가장 높은 관련이 있었으며, 음악연주로서의 직업선택 의지에는 내재된 흥미와 달성 가치가 가장 높은 관련이 있었다.

이상이 음악대학 학생의 직업선택 의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음악 분야 외의 직업선택 의지에 대한 연구는 엔지니어링, 수학 등과 같은 STEM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uenks et al, 2019; Tedhar, 2015; Valerio,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업선택 의지를 해당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지표로써, 최종 학업을 마친 뒤 해당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장 선호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업인 전문음악가와 중등 음악교사를 선정하고, 두 직업을 최종 경력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직업 흥미 발달에 대하여 조사한 Carter(1940)와 나이에 따라 직업 행동이 체계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 Strong(1943)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진로성숙 연구에서 Carter(1940)와 Strong(1943)은 성숙을 단발적인 차원에서 직업적 의미에 집중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Dysinger(1950)는 이러한 진로 행동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최초로 지적하였다.

이후 Super(1955)의 논문 "직업성숙의 차원과 측정"에서 진로성숙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소개된 후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Super(1955)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진로발달 5단계를 설정하고, 진로성숙을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로 나누었다. 절대적 정의는 진로발달의 절대적 정도를 나타내며,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한 개인이 도달한 위치나 발달 과업에 의하여 정의되는 개념이다. 상대적 정의는 진로 발달 정도를 생활연령, 기대되는 생애발달단계, 타인과의 행동을 통한 비교로 도출되는 개념이다.

Crites(1965)는 진로성숙에 대한 앞선 Super(1955)의 정의를 지적하며, 진로발달을 정도와 비율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정의하였다. 정도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개인의 진로행동의 유사성을 뜻하고, 비율은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진로가 성숙한 정도를 말한다(이희영, 2003, pp. 66-71, 재인용).

1980년대부터는 국내에서도 진로성숙도, 진로성숙태도에 대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초기 학술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박흥기, 류창열, 1992; 이수정, 현온강, 1994). 2000년대 들어서는 장애학생, 미혼모 청소년, 시설 청소년, 탈북 청소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다문화 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 예비 현직교사 등 연구대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곽혜란, 장유진, 2012; 김동일 외, 2015; 김만지, 2001; 이달엽 외, 2004; 이윤화, 김난희, 2006; 이해균, 이재영, 2005; 최윤희, 김순자, 2011; 허은영, 강혜영, 2007).

충청남도 지역의 아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시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과 지역사회 접근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이윤화, 김난희(2006)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도출해냈다. 이후 실제 연구를 통

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전체 진로성숙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최윤희, 김순자(2011)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을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 자기수용성, 주도성, 주체성, 친밀성 등 6가지로 나누었으며, 진로성숙도의 경우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등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이 전체 진로성숙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미래확신성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자아정체감의 주체성과 자기수용성은 진로성숙도의 관여성에, 자아정체감의 주도성은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에, 자아정체감의 미래확신성은 진로성숙도의 성향에,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성은 진로성숙도의 타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높은 자아정체감은 높은 진로성숙도로 연결되며, 자신의 성격특성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갖추수록 진로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의거하여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문헌들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진로선택 시 실제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설명한 이기학, 한종철(1997)을 참고하여, 진로성숙도를 실제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성숙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4.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함께 다룬 연구는 주로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그 수가 작다. 음악전공 대학생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전공만족, 연주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오남주(2022)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4개의 음악학과 재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주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위하여 김아영,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였으며, 진로성숙태도의 측정을 위하여 이기학, 한종철(1997)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 등 4가지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음악대학 학생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과 연주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용음악전공의 학습몰입,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장웅상(2020)은 수도권 소재 4개 대학과 4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45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기학(1997)이 개발하고 김말선(2011), 권은숙(2015), 오명숙(2015)이 재구성한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실용음악전공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대학생의 그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몰입과 진로성숙도 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실용음악전공생의 전공만족도가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박세진(2019)은 이기학(1997)이 개발하여 옥선형(2016)이 재구성한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

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 구조적 관계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성숙도,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음악분야에서 진로성숙도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김민, 2006; 김민진, 2017; 김소연, 2014; 김영미, 2016; 민서홍, 2012; 이수지, 2018; 이정은, 2015; 한지훈, 202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음악전공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Google Forms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여간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하여 대상을 모집하였다. 대상 모집은 먼저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에게 개별 연락하여, 단체 채팅방 및 커뮤니티를 통해 동일전공 재학생에게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각 대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과 사무실 연락처를 통하여 조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전공별 단체 채팅방 및 커뮤니티에 설문을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대학원 음악전공은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총 11개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은 수도권,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지역의 1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석사과정 재학생 53명,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재학생 76명, 총 129명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여성 116명(89.9%), 남성 13명(10.1%)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최소 만 21세부터 최대 만 47세까지 있었으며, 평균 27.35세, 표준편차 4.79로 나타났다. 20대가 95명(7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 29명(22.5%), 40대 5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53명(41.1%),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76명(58.9%)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교의 지역은 수도권이 가장 많은 62명(48.1%), 경상권 42명(32.6%), 충청권 16명(12.4%), 전라권 6명(4.7%), 강원권 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여자	116	89.9
	남자	13	10.1
연령대 (만 나이)	22-29	95	73.6
	30-39	29	22.5
	40-47	5	3.9
전공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53	41.1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76	58.9
재학 중인 학교의 지역	수도권	62	48.1
	경상권	42	32.6
	충청권	16	12.4
	전라권	6	4.7
	강원권	3	2.3
전체		129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설계, 수행, 분석, 정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설문예 앞서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석사과정 학생 2명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학생 3명, 그 외 프리랜서 작곡가 1명 등 총 6명에게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선택 의지와 음악연주 자기효능

감 및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에 대한 문항이 보완되었다. 이후 수행 단계에서는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53명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해당 설문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배포되었다.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한 후 분석하였으며, 이후 정리 단계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글로 정리하면서 여러 차례 퇴고를 반복하였다.

<표 2> 연구절차

절차	일정	내용
설계	2022년 3월~12월	- 선행 문헌 탐색 및 주제 선정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작성 - 설문 제작 및 예비 조사
수행	2023년 1월~3월	- 연구대상 모집 - 설문 배포
분석	2023년 4월	- 자료 처리 및 분석 - 결과 도출
정리	2023년 5월	- 결론 작성 - 퇴고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설문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공에 따른 직업선택 의지,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상이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3>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수	합계
일반적 특성	성별	1	4
	만 나이	1	
	재학 중인 학교의 지역	1	
	전공	1	
직업선택 의지	최종 선택 직업	2	3
	졸업 후 최종 경력이 각 직업일 가능성	1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구체적 연주 경험을 떠올리기 위한 예비 문항	4	24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11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9	
진로성숙도	결정성	10	
	목적성	8	
	확신성	10	
	준비성	10	
	독립성	9	
전체			78

1) 직업선택 의지 측정도구

직업선택 의지의 경우, 전문음악가(연주가, 작곡가 등), 중등음악교사, 그 외 기타 중 가장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객관식 1문항, 졸업 후 각 직업을 최종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에 대한 객관식 1문항, 그 외 기타를 고른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하는 직업에 대하여 기재하는 주관식 1문항,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학업을 마친 후 희망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Likert 7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으로 표기되었다.

설문 문항에서 졸업 후 최종 희망직업은 전문음악가, 중등음악교사, 음악강사로 이루어졌으나, “전문음악가의 경우 출강을 겸업하는 경우가 대다수”, “강사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

문음악가, 중등음악교사, 그 외 기타로 수정하였다.

2)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Ritchie & Williamon(2010)가 개발한 Likert 7점 척도로써 원문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하였다. 측정도구 번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Google 번역기와 Naver 파파고 번역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음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번안한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번안이 매끄럽지 않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받은 문항은 원문이 의미하는 바를 잘 답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 전문가 1인과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재실시한 예비 조사에서 모든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문항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신뢰도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이 Cronbach's $\alpha=.79$,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Cronbach's $\alpha=.82$ 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최종 번안본은 <부록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uper(1969)의 진로발달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 CDI), Crites(1965)의 진로성숙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국내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1)의 진로성숙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다(<표 4> 참조).

<표 4> 주요 진로성숙도 측정도구

개발자	측정도구	대상	하위 영역(문항 개수)
Super (1969)	진로발달검사(CDI)	중2-고3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부 진로성향: 진로계획(20), 진로탐색(20), 의사결정(20),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20) 2부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40)
Crites (1965)	진로성숙검사(CMI)	초6-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도검사: 선발용(50) 태도검사: 상담용(75) - 결정성(15), 참여도(15), 독립성(15), 성향(15), 타협성(15) 능력검사: 자기평가(20), 직업정보(20), 목표선정(20), 장래전망(20), 문제해결(20)
한국교육 개발원 (1991)	진로성숙검사	중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도검사: 계획성(13), 독립성(13), 결정성(10) 능력검사: 직업세계의 이해(30), 직업선택(15), 의사결정(15)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성숙태도검사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성(10), 목적성(8), 확산성(10), 준비성(10), 독립성(9)

* 이희영, 2003, p. 11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문(고라희, 2016; 이슬, 2016; 장명진, 2019)에서 성인의 진로성숙도 측정에 다수 활용된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성숙태도 검사를 채택하였다. 다만 해당 검사의 문항 중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의 표현은 현 시대를 고려하여 “나는 뉴스를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읽는다”로 수정하였다.

이기학, 한종철(1997)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 태도 면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표 5>는 이기학, 한종철(1997)이 제시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대한 특징과 예시이다.

<표 5>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의 특징과 예시(이기학, 한종철, 1997)

하위요인	특징	예시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한다.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이미 정해져 있다.
목적성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른 정도. 현실적 요소보다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의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면보다 일의 성격을 우선시한다.
확신성	선택한 진로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준비성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계획 정도.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을 측정한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독립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나는 부모님의 반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 이희영, 2003, p.1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성숙태도검사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는 Cronbach's $\alpha=.91$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

성은 Cronbach's $\alpha=.93$, 목적성은 Cronbach's $\alpha=.82$, 확산성은 Cronbach's $\alpha=.88$, 준비성은 Cronbach's $\alpha=.81$, 독립성은 Cronbach's $\alpha=.80$ 으로 진로성 속도 하위요인 문항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속도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속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20점 미만: 매우 낮음, 20점 이상~40점 미만: 낮음, 40점 이상~6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80점 미만: 높음, 80점 이상: 아주 높다'의 값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Likert 7점 척도로 다시 환산하면, '1점 이상~2.2점 미만: 매우 낮음, 2.2점 이상~4.4점 미만: 낮음, 4.4점 이상~5.6점 미만: 보통, 5.6점 이상~6.8점 미만: 높음, 6.8점 이상: 아주 높음'이 된다.

다음으로,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속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 각각 평균 5.74, 5.66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에 속하였다. 그러나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 각각 평균 5.40점, 5.30점으로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보다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다소 낮았다(<표 6> 참조).

<표 6> 집단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변인	집단	<i>n</i>	평균	최소	최대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53	5.74	3.55	6.91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76	5.66	3.64	7.00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53	5.40	4.00	7.00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76	5.30	3.22	7.00

최종 학업을 마친 후 가장 희망하는 직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반대학원 음악전공은 최종 희망직업으로 전문음악가를 41명(77.3%)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은 중등음악교사를 61명(80.3%)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일반대학원 음악전공에 재학 중임에도 중등음악교사를 최종 희망직업으로 선택한 3명(5.7%)과

반대로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에 재학 중임에도 전문음악가를 최종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8명(10.5%) 또한 존재하였다. 그 외 기타를 선택한 16명(12.4%)의 경우, ‘강사’, ‘대학교수’, ‘연구자’, ‘학원 운영’, ‘예술기획’, ‘잘 모르겠음’ 등의 응답을 기재하였다(<표 7> 참조).

<표 7> 집단별 최종 희망직업

직업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체
	음악전공	음악교육전공	
	n(%)	n(%)	n(%)
전문음악가	41 (77.3)	8 (10.5)	49 (38.0)
중등음악교사	3 (5.7)	61 (80.3)	64 (49.6)
그 외 기타	9 (17.0)	7 (9.2)	16 (12.4)
전체	53 (100)	76 (100)	129 (100)

직업선택 의지의 경우,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중 전문음악가를 최종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는 평균 4.75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중 중등음악교사를 최종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는 평균 4.91점으로,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중 중등음악교사를 최종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는 평균 2.75점으로 ‘낮음’ 수준이었으며,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중 전문음악가를 최종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는 평균 4.9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 음악전공임에도 최종 희망직업으로 중등음악교사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임에도 최종 희망직업으로 전문음악가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원 음악전공에 재학 중임에도 최종 직업으로 중등음악교

사를 아주 희망하는 경우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에 재학 중임에도 최종 직업으로 전문음악가를 아주 희망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였다(<표 8> 참조).

<표 8> 집단별 전문음악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

집단	<i>n</i>	직업	평균(SD)		최소	최대	중위수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53	전문음악가	4.75	1.69	1.00	7.00	5.00
		중등음악교사	2.75	1.85	1.00	7.00	2.00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76	전문음악가	3.49	1.89	1.00	7.00	3.00
		중등음악교사	4.91	1.68	1.00	7.00	5.00

진로성숙도는 일반대학원 음악전공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각각 평균 5.00점, 5.01점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음악전공의 경우 확신성이 평균 4.54점으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가장 낮았으며, 음악교육전공의 경우 목적성이 평균 4.55점으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집단별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

변인	음악전공 (n=53)				음악교육전공 (n=76)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진로성숙도	5.00	.67	3.58	6.46	5.01	.73	5.01	6.46	
결정성	4.70	1.30	2.10	7.00	5.08	1.38	1.60	7.00	
하 위 요 인	목적성	4.79	1.06	1.88	6.75	4.55	1.06	2.38	6.63
	확신성	4.54	1.19	1.60	6.80	4.86	1.23	1.30	7.00
	준비성	5.46	.88	3.20	7.00	5.49	.84	2.90	7.00
	독립성	5.49	.83	3.56	7.00	5.10	.94	2.11	7.00

2.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 차이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의 경우,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참조).

<표 10> 집단별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차이

변인	음악전공 (n=53)	음악교육전공 (n=76)	t	p
	평균(SD)	평균(SD)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5.74 (.67)	5.66 (.82)	.62	.54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5.40 (.86)	5.30 (.98)	.62	.54

직업선택 의지의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직업선택 의지에서는 음악전공이 음악교육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중등음악교사가 되고자 하는 직업선택 의지는 음악교육전공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음악전공의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 음악교육전공의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각각 평균 4.75점, 4.91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음악교육전공의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음악전공의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표 11> 참조).

<표 11> 집단별 직업선택 의지 차이

변인	음악전공 (n=53)	음악교육전공 (n=76)	t	p
	평균(SD)	평균(SD)		
직업선택 의지 (→ 전문음악가)	4.75 (1.69)	3.49 (1.89)	3.92	.00***
직업선택 의지 (→ 중등음악교사)	2.75 (1.85))	4.91 (1.68)	-6.88	.00***

*** $p < .001$

일반대학원 음악전공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의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로성숙도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의 하위요인은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독립성은 음악교육전공이 음악전공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p < .05$, <표 12> 참조).

<표 12> 집단별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 간 차이

변인	음악전공	음악교육전공	<i>t</i>	<i>p</i>
	(<i>n</i> =53) 평균(SD)	(<i>n</i> =76) 평균(SD)		
진로성숙도	5.00 (.67)	5.01 (.73)	-.15	.88
결정성	4.70 (1.30)	5.08 (1.38)	-1.55	.12
하	4.79 (1.06)	4.55 (1.06)	1.24	.22
위	4.54 (1.19)	4.86 (1.23)	-1.47	.14
요	5.46 (.88)	5.49 (.84)	-.19	.85
인	5.49 (.83)	5.10 (.94)	2.45	.02*

* $p < .05$

3.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가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F=29.53(p<0.01)$ 으로 본 회귀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adj. R^2=.31$ 로 31%의 설명력을 가졌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모두 $B=.28(p<.01)$ 로 나타나,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진로성숙도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표 13> 참조).

<표 13>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F</i>	<i>R</i> ² (<i>adj.</i> <i>R</i> ²)	<i>TOL</i>	<i>VIF</i>
	<i>B</i>	<i>SE</i>	β					
상수	2.19	.39		5.63***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28	.10	.31	2.94**	29.53***	.32 (.31)	.50	2.00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28	.08	.31	2.94**			.50	2.00

** $p < .01$, *** $p < .001$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 중에서도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모형은 $F=29.47(p<.001)$ 로 타당하였으며, $adj.R^2=.31$ 로 31%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때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계수 $\beta=.05$ 인 한편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계수 $\beta=.53$ 으로 나타나,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 자기효능감보다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B=.69(p<.001)$ 로 나타나 확신성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14> 참조).

<표 14>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F</i>	<i>R</i> ² (<i>adj.</i> <i>R</i> ²)	<i>TOL</i>	<i>VIF</i>
	<i>B</i>	<i>SE</i>	β					
상수	.58	.68		.87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08	.17	.05	.50	29.47***	.32 (.31)	.50	2.00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69	.14	.53	5.07***				

*** $p < .001$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회귀 모형은 $F=3.40(p<.05)$ 로 타당하였으며, $adj.R^2=.04$ 로 4%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때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계수 $\beta=.26$ 인 한편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계수 $\beta=-.06$ 으로 나타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이 음악연주 자기효능감보다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B=.30(p<.05)$ 로 나타나 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5> 참조).

<표 15>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F</i>	<i>R</i> ² (<i>adj.</i> <i>R</i> ²)	<i>TOL</i>	<i>VIF</i>
	<i>B</i>	<i>SE</i>	β					
상수	4.09	.56		7.30***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30	.14	.26	2.16*	3.40*	.05 (.04)	.50	2.00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05	.11	-.06	-.48				

* $p < .05$, *** $p < .001$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회귀 모형은 $F=9.14(p<.001)$ 로 타당하였으며, $adj.R^2=.11$ 로 11%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때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계수 $\beta=.04$ 인 한편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계수 $\beta=.33$ 으로 나타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이 음악연주 자기효능감보다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B=.39(p<.01)$ 로 나타나 독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6> 참조).

<표 16>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² (adj. R ²)	TOL	VIF
	B	SE	β					
상수	2.83	.57		4.94***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39	.14	.33	2.81**	9.14***	.13 (.11)	.50	2.00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03	.12	.04	.30			.50	2.00

** $p < .01$, *** $p < .001$

정리하자면,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준비성, 독립성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확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전문음악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본 회귀 모형은 적합하지 않았으며, adj. $R^2 = .00$ 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즉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의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의지는 진로성숙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표 17> 참조).

<표 17>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 R^2)	TOL	VIF
	B	SE						
상수	4.72	.21		22.4 5***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의지	.04	.03	.101	.265	.36	.02 (.00)	.96	1.05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의지	.04	.03	.101	.268			.96	1.05

*** $p < .001$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선택 의지별로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목적성, 독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본 회귀 모형은 $F=6.06(p<.05)$ 로 타당하였으며, $R^2=.05$ 로 5%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12(p<.05)$ 로 나타나 독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을수록 독립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F	R ²
	B	SE	계수 β			
상수	4.17	.21		19.47***		
목적성	.12	.05	.21	2.5*	6.06*	.05

* $p < .05$, *** $p < .001$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회귀 모형은 $F=6.40(p<.05)$ 로 타당하였으며, $R^2=.05$ 로 5%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10(p<.05)$ 로 나타나 독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을수록 독립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표 19> 참조).

<표 19>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F	R ²
	B	SE	계수 β			
상수	4.84	.18		26.33***		
독립성	.10	.04	.22	2.53*	6.40*	.05

* $p < .05$, *** $p < .001$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회귀 모형은 $F=5.63(p<.05)$ 로 타당하였으며, $R^2=.05$ 로 5%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전공의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B=.14(p<.05)$ 로 나타나, 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을수록

결정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표 20> 참조).

<표 20>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F</i>	<i>R</i> ²
	B	SE	β			
상수	4.37	.26		16.83***		
결정성	.14	.06	.21	2.37*	5.63*	.05

* $p < .05$, *** $p < .001$

한편 목적성, 독립성을 제외한 다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은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결정성을 제외한 다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 또는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진로성숙도 총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목적성, 독립성에,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한 결과, 53명의 음악전공, 76명의 음악교육전공, 총 129명의 연구대상이 모집되었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문항은 Ritchie & Williamon(2010)이 개발한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진로성숙도는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모두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모두 ‘보통’ 수준을 보였다. 음악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평균 5.74(SD=.67)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평균 5.40(SD=.86)점이었으며,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평균 5.66(SD=.82)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평균 5.30(SD=.9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원생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는 모두 ‘보통’ 수준으로 전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독립성은 음악교육전공이 음악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5$).

음악전공과 음악교육전공을 비교했을 때,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독립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부모나 주변의 영향에 의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존적 인지경향을 가진 사람은 독립적

인지경향을 가진 사람보다 불분명한 직업적 흥미를 보여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Witkin, 1973), 낮은 독립성은 후일 교직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독립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음악전공의 경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평균 4.54점, 음악교육전공의 경우 목적성이 평균 4.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악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실령 중등음악교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했을지라도, 직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 < .01$), 이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도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악학습 자기효능감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은 준비성($p < .05$)과 독립성($p < .01$)에 영향을 미쳤으며,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은 확신성($p < .001$)에 영향을 주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음악교육전공의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은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음악전공 대학원생은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원생의 확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의 결여는 무대 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Ritchie & Williamon, 2010)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와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

업선택 의지는 모두 전체 진로성숙도 점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목적성($p < .05$)과 독립성($p < .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결정성($p < .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음악가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업을 통한 자기계발, 대인관계 등과 같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며, 직업선택에 있어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등음악교사로서의 직업선택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중등음악교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결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실제 전문음악가 혹은 중등음악교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과 직업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한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음악전공 대학원생은 확신성 측면에서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을,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은 독립성 측면에서 음악학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라희 (2016). 음악대학 피아노, 관현악, 성악전공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곽혜란, 장유진 (2012). 다문화 이주여성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직업관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5(2), 181-188.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접속일 05.11.2023.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58&menuSeq=0&itemCode=02&language=en>
- 김동일, 김경선, 이재호, 장세영, 이미지, 조영희 (2015).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특성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2), 41-61.
- 김만지 (2001). 청소년기 미혼모의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 134-159.
- 김민 (2006).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중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민진 (2017).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소연 (2014). 오디션 프로그램 인식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실용음악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영미 (2016). 예술 고등학교 음악과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문혜민 (2019).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1), 62-81.
- 민서홍 (2012).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박선영, 김지영, 오효정, 오은경 (2014). *진로상담과 직업*. 파주: 정민사.
- 박세진 (2019).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국

- 민대학교.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 지 및 음악환경의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박홍기, 류창열 (1992).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8(2), 102-116.
- 성은현 (2005).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217-228.
- 오남주 (2022). 음악전공 대학생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전공만족, 연주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유은경 (2018). 대학생의 Egogram 자아상태,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취업진로연구**, 8(4), 1-19.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달엽, 박혜전, 이승욱, 정광희 (2004). 청각장애인 진로성숙도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재활복지**, 8(2), 115-147.
- 이수정, 현온강 (1994). 여고생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6(1), 1-15.
- 이수지 (2018). 음악 전공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비교 연구: 전분지역 예술고, 전통고, 인문계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슬 (2016).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윤화, 김난희 (2006). 시설청소년의 진로성숙 영향요인과 지역사회 접근방안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 65-86.
- 이정은 (2015). 관악합주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균, 이재영 (2005). 초등부 시각장애아동과 정안아동의 진로의식 성숙도 비교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7(2), 67-89.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장명진 (2019).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장웅상 (2020). **실용음악전공 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6(4), 25-47.
- 주희선 (2013).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3), 107-120.
- 최윤희, 김순자 (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0(3), 743-762.
- 판리 (2022). **중국 대학 성악전공 학생의 성악공연경험이 음악학습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한윤정, 김경숙 (2016). 음악치료를 활용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분노 조절, 공격성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10(3), 207-236.
- 한정 (2022). **음악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음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 한정수 (2017). **작곡전공 음대생들의 20세기 음악 학습과 이에 따른 진로 선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한지훈 (202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온석대학원대학교.
- 허은영, 강혜영 (2007).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비교. **상담학연구**, 8(4), 1485-1500.
- Bandura, A. (1995). 윤운성 역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 Bonneville-Rossy, A., Evan, P., Filion, J. V., & Vallerand, R. J. (2017). Motivation and coping with the stress of assessment Gender

- differences in outcomes for university stud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48, 28-42.
- Froehlich, H., & Arlington, D.L. (1985). An Investigation of Occupancy Identity in Undergraduate Music Education Major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85, 65-75.
- Miksza, P., Evans, P., & McPherson, G. E. (2021). Motivation to pursue a career in music: The role of social constraints in university music program. *Psychology of Music*, 49(1), 50-68.
- Muenks, K., Peterson, E. G., Green, A. E., Kolvoord, R. A., & Uttal, D. H. (2020). Parents' beliefs about high school students' spatial abilities: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encouragement to pursue a STEM career and students' STEM career intentions. *Sex Roles*, 82, 570-583.
- Nielsen, S. G. (2004). Strategies and self-efficacy belief in instrumental and vocal individual practice: A study of students in higher music education. *Psychology of Music*, 32(4), 418-431.
- Parkes, K. A., & Jones, B. D. (2012). Motivational constructs influencing undergraduate students' choices to become classroom music teachers or music performer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0(1), 101-123.
- Ritchie, L., & Williamon, A. (2010). Measuring distinct types of musical self-efficacy. *Psychology of Music*, 39(3), 328-344.
- Schunk, D. H. (1996). *Self-Efficac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ERIC. Retrieved June, 2, 2023 from <<https://eric.ed.gov/>>
- Tendhar, C. (2015). *Effects of Motivational Beliefs and Instructional Practice on Students' Intention to Pursue Majors and Careers in Engineering*.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Tech.
- Witkin, H. A. (1973). The Role of Cognitive Style in Academic Performance and in Teacher-Student Relations 1 2. *ETS Research Bulletin Series*, 1973(1), i-58.
- Valerio, J. Z. (1995). *Dominican students' intentions to pursue a*

mathematics-related career: an exploratory study of gender and affective issu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BSTRACT

The Effect of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and Intention to Pursue a Career as a Musician or Music Teacher on Career Maturity

Seo, Yu ji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and intention to pursue a career as a musician or music teacher and investigate how these three factors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of master's degree students who majored in music or music education. Also, the differences in these three factors between music and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were investigated by t-test. A total of 129 music(n=53) and music education(n=76) students completed a online survey. The measures of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and performing are from Ritchie & Williamon(2010). And the measure of career maturity is from Lee & Han(1997) who explained

career maturity with five sub-factors: decisiveness, aim, certainty, preparedness, and independency.

As a result of analysis by SPSS Statistics 29.0, several points imply certain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and performing between music and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Seco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between music and music education students.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ependency, where music education students' is lower than music studen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ependency suggests that students have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ir careers depending on the major they select.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are more likely to exhibit a tendency to be influenced by their parents and circumstance. In terms of field-dependence-independence, individuals who are field-dependent may face difficulties in articulating their vocational interests(Witkin, 1973), The comparatively lower score in independency among music education students could have an impact on their satisfaction as music teach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to strengthen their independency.

In addition, among career maturity sub-factors, music major students scored the lowest in convincing, while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scored the lowest in aim. The lowest score in convincing among music major students suggests that, despite being enrolled in master's degree courses, they lack a certain belief in their potential success as

professional musicians. And the lowest score in aim among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suggest that, even though they have made a firm decision to become music teacher, it implies that they are not clear about what they aim to achieve through the profession.

Third,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especially preparedness and independency.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especially convinc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ower score in independency among music education major students can be improved through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Furthermore, enhancing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can help improve the lowest score in convincing among music major students. It is important to enhance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as the lack of it can be lead to stage anxiety(Ritchie & Williamon, 2010).

Fifth, intention to pursue a career as a musician or music teacher does not directly impact overall career maturity score, but rather specific sub-factors. Intention to pursue a musician have impact on aim, independency, while intention to pursue a music teacher have impact on decisiven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with a higher intention to pursue a career as a musician demonstrate a clearer and more independent pursuit of specific aspects such as self-develop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their profession. Similarly, those with a stronger intention to become music teachers exhibit a firm determination and resolve to pursue a career as a music teacher.

In conclusion, in order to enhance career maturit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and learning. Specifically, music major students should focus on enhancing self-efficacy for musical performing, particularly in terms of convincing, while music education students should focus on enhancing self-efficacy for musical learning in terms of independency.

<부록> 최종 설문지

음악학습 자기효능감,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음악학습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이 직업선택 의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서유진입니다.

본 설문은 현 일반대학원 음악전공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음악학습 및 음악연주 자기효능감, 직업선택 의지,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연구와 사례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사후 폐기됨을 고지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연구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서유진

Email: yuddding@naver.com

1. 다음 물음 중 해당하는 항목에 답해주시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현재 만 나이를 작성해주시시오. (만 OO세)

(3)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세종 및 충청도
③ 강원도
④ 광주 및 전라도
⑤ 부산, 울산, 대구 및 경상도
⑥ 제주도

(4) 귀하의 현재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대학원 음악전공
②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5) 졸업 후(모든 학업을 마친 후) 가장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음악가(연주가 및 작곡가)
② 중등음악교사
③ 그 외 기타

(6) 위의 질문에 “그 외 기타”를 고른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7) 졸업 후(모든 학업을 마친 후) 최종 경력이 각 직업을 가능성을 표시해주십시오.(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전문음악가							
중등음악교사							

2. 최근 연주한 구체적인 연주 활동(소나타나 협주곡 등의 독주, 실내악이나 앙상블 연주, 그 외 즉흥 연주 등) 중 하나를 떠올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1) 연주한 곡목

(2) 관객 수

(3) 연주한 장소

(4) 연주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미흡 ~ 7= 매우 만족)

1	2	3	4	5	6	7

3. 지금부터는 곡 난이도, 연주 환경, 외부의 기대나 요구 면에서 위에 기재한 것과 비슷한 연주를 두 달 뒤에 공연하기로 요청 받았을 때를 가정하여 답해주십시오.

- 앞서 가정한 상황에서, 연주를 위한 준비와 학습 측면에 집중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시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0%) ~ 7= 완전히 동의함(100%))

(1) 나는 이 연주를 위해 연주할 곡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1	2	3	4	5	6	7

(2) 이 연주를 위해 연습이나 리허설을 해야만 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이 곡을 처음에는 잘 연주할 수 없더라도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할 것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이 연주를 위해 중요한 학습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곡을 완성하기도 전에 이 연주를 위한 준비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6	7

(6) 만약 나에게 이 연주의 준비 과정에서 불쾌한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연연할 것이다.

1	2	3	4	5	6	7

(7) 내가 이 연주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곧바로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내가 이 연주를 위해 이 곡을 처음 연주했을 때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는 금세 포기할 것이다.

1	2	3	4	5	6	7

(9) 나는 이 연주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더 철저하게 연습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이 연주를 위한 노력을 쉽게 포기할 것 같다.

1	2	3	4	5	6	7

(11) 나는 이 연주를 위한 연습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없다.

1	2	3	4	5	6	7

- 지금부터는 앞서 가정한 상황에서, 공연 당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시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0%) ~ 7= 완전히 동의함(100%))

(1) 나는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자신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연주를 하는 동안 중요한 목표들을 설정하지만 그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

1	2	3	4	5	6	7

(3) 나는 이 연주에서 어렵거나 도전적인 시도는 피할 것 같다. (예. 빠르게 연주, 음악적 표현 강화 등)

1	2	3	4	5	6	7

(4) 나는 이 연주를 둘러싼 사건이나 환경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줄 것 같으면, 이 연주를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연주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예. 기침, 휴대폰, 벨소리, 사진 촬영 등)

1	2	3	4	5	6	7

(6) 나는 이 연주를 위해 선택한 곡이 너무 어렵게 생각된다면 연주를 피할 것 같다.

1	2	3	4	5	6	7

(7) 나는 이 공연을 위한 나의 연주에 자신이 없다.

1	2	3	4	5	6	7

(8) 나는 연주 도중 쉽게 포기할 것 같다.

1	2	3	4	5	6	7

(9) 나는 연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다. (예. 메모리 슬립, 곡 암보를 잊어버림, 실수, 손땀, 손 떨림 등)

1	2	3	4	5	6	7

4. 다음은 본인의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0%) ~ 7= 완전히 동의함(100%))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1	2	3	4	5	6	7

(2)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1	2	3	4	5	6	7

(3)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5)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상상해 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	2	3	4	5	6	7

(7) 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1	2	3	4	5	6	7

(8)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6	7

(9)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7

(10) 내 주변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6	7

(11) 나는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3)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6	7

(14) 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6	7

(15) 나는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1	2	3	4	5	6	7

(16)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6	7

(1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6	7

(18) 나는 근무 시간도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	2	3	4	5	6	7

(20)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6	7

(21)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6	7

(22)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2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24)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25)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6	7

(26)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지 걱정이다.

1	2	3	4	5	6	7

(27)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	2	3	4	5	6	7

(28)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1	2	3	4	5	6	7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

1	2	3	4	5	6	7

(30) 나는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1	2	3	4	5	6	7

(31)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진로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6	7

(32) 나는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길 원한다.

1	2	3	4	5	6	7

(33) 나는 뉴스를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1	2	3	4	5	6	7

(3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

1	2	3	4	5	6	7

(35) 나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36)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1	2	3	4	5	6	7

(37) 나는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38)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1	2	3	4	5	6	7

(39)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6	7

(40)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6	7

(41)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42)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6	7

(43) 나는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44)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 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1	2	3	4	5	6	7

(45)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6	7

(46) 나는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6	7

(47)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6	7